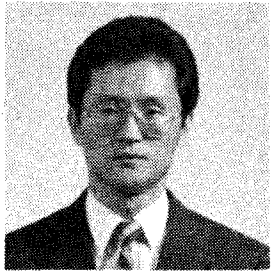


학술특집

구조주의 입문을 위한 소고 (上)

‘인식론’의 새로운 지평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한 철학적 논쟁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구조주의’는 기존의 인식론인 과학중심적 ‘실증주의’와 인간중심적 ‘주체철학’ 모두를 비판하였고 양자의 오류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 및 인식의 대상을 둘러싼 갖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구조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인문·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편집자 주〉



김 대 수

〈서울대 박사수료·행정학〉

I. 들어가는 말

존재를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존재와 인식 사이에는 시간·공간적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가? 인간의 인식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가? 과연 인간은 관념론이나 실증주의·인간중심적 철학이 운운하는 것처럼 주체(subject)로서의 자아가 충분한가? 역사와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인간인가, 아니면 제약요인이자 대상으로서의 구조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철학적 인식론·존재론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장점으로 충분히 부각시키고도 남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철학과 사회과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하거나 경시하여 왔다. 그러한 경향의 이면에는 거의 미국화된 실증주의적·인간중심적 인식론과 방법론의 강력한 영향력이 위축한다. 바로 여기서 종래의 인식론·방법론의 근간이 되어 온 과학중심적인 (논리)실증주의와 인간중심적인 관념론·실증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요청된다.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인식론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없었지만, 종래의 사회과학이 견지해온 무비판적 학문경향에 기본적으로 반발하는 몇몇 사회과학의 조류가 발달하고 있다. 즉, 종래의 철학적 주류가 되어온 소위 주체철학(philosophy of subject)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철학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비판철학적 사회과학-예컨대 국가론적 정치학과 가치이론·자본논리를 중시하는 정치경제학, 국가사회학과 계급론적 사회학, 한국사회의 성격과 구성체를 둘러싼 한국사회학, 법체계의 편파적 과정과 당파성(partisanship)을 탐구하는 당파적 법사회학 등은 공통적으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묵시적으로 회의를 제기하면서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는 능력상의 한계와 제약요인으로서의 구조가 갖는 상대적 위력에 주목하고 있

다.
이들 학문은 그러한 접근방법을 한국에 토착화하는데 크게 유익함으로써 종래의 미국일변도적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 학문풍토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소위 한국적 사회과학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한 류의 사회과학은 한국사회의 특수성 명제에 기초하여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종의 구조주의적인 사회인식론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종래 사회인식론으로서의 실증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근본적으로 회의를 제기하면서, 이에 반발하여 발달하고 그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조주의적 사회인식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주의적 사회인식론은 이미 비판적 사회과학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한국의 각종 사회운동에 그 사유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인식론으로서 구조주의가 왜 필요하며 구조주의적 사회과학의 면모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 사회인식론으로서의 실증주의

철학적 인식론과 사회인식론의 구별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주로 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서양철학사에 의하면 현재의 사회인식론은 크게 과학중심적인 인식론과 인간중심적인 인식론으로 구성된다. 앞의 보기에 양자는 서로 반발

히 자연과학이 엄밀한 자연주의적 원칙에 충실하자 사회과학도 여기서 영향을 받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일반론적·법칙추구적 경향을 갖게 되면서 사회인식론의 방법론은 과학중심주의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 원초가 고대 철학시대의 자연철학이었고 이후 자연과학이 크게 발달한 근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생물학적 유추·체제이론, 사회진화론 등에 의해 그 원형은 자연과학이 되었다.

스펜서나 포퍼 등의 기능주의, 공평과 생사공 등의 실증주의, 베킨과 홀 등 영국계의 경험주의의 예는 그 지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보다 엄격한 과학의

과 비경험적 진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반적 진술과 관찰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연구절차는 자연과학을 모형으로 한다는 명제, 경험적 검증의 우위성 명제, 경험적 세계로의 환원가능성 명제를 강조한다.

또 상호주관적 타당성과 과학적 주체의 객관성을 동일시하고 사실에 대한 형식 논리에 따라 보장되는 가치중립적 서술과 설명으로써 과학을 규정하며 어떤 가치 판단도 사실에서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실증주의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에 크게 의존하며, 곧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거의 무비판적으로

을 둘러싼 존재도 결국 인식주체인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인간중심주의인 것이다. 실증주의는 휴머니즘의 대명사로 통하면서 인간중심주의의 원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실존을 본질보다 앞세우면서 객관성·법칙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인간의 개인적 실존개념과 주관적 의식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철저한 인간중심적 사회인식론을 구성하고 있다.
현상학은 물리적 객관주의에 대해 선험적 주관주의를 강조한다. 즉, 갈릴레오적 객관주의에 반대하여 데카르트적인 선험적 인식론을 중요시하는 인간중심적 사회인식론이다. 해석학 역시 텍스트 이면의 의미를 강조하며 역

했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의의적인 조류였다. 따라서 실체력이나 종교적·윤리적 타당성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석력이나 예측력은 매우 부족함으로써 후기산업사회의 복잡화된 자본주의사회를 설명해 낼 수 없었고 비인간적 사회메카니즘과 주체로서의 인간을 구속하는 국가 및 각종의 구조와 독재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 인식론적으로 인간의 인식능력은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이나 추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것이다. 또 착각이나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개인적인 경험체계도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인식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즉, 존재와 인식 사이에는 차이(차이: difference)-공간적 차이(difference)와 시간적 차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중심적 사회인식론이 가정하고 있는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의 절대성과 인식자해의인으로서의 구조에 대한 경시 등의 명제는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주체철

글의 구성	
I. 들어가는 말	(上)
II. 기존 사회인식론으로서의 실증주의	
III. 인간중심적 인식론의 실패	
IV. 구조주의 등장배경과 흐름	
V. 사회과학적 구조주의의 요제	
VI.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구조주의의 적실성	
VII. 한국사회의 인식론으로서 구조주의의 방향	

이었고, 이어 아랍세계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사회인류학의 영역에서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를 체계화시킨 것은 20세기 초·중기였다.

이후 알튀세르나 바르트, 고델리에, 라캉, 플리단 등에 계승되어 전성기를 맞은 때는 대략 1960년대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후기구조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구조주의가 1960년대에서 갑자기 프랑스의 학문적 주류로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전유럽에 파급되며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구조주의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표현하였다. 앞서 언급한 유트피아적 처방이 될 수 없음은 형가리, 체코사태, 중소분쟁 등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났고, 후기산업사회적 시대상은 역사주의의 오류를 지적해 주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시대적 격동은 자연히 새로운 사회인식론과 철학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종래의 영미의 과학중심적 인식론과 유럽대륙적 인간중심적 인식론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조주의였다. 즉, 구조주의는 지나친 과학주의를 경계하는 미국적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반과학적인 인간중심주의도 동시에 비판하면서 그 유효하고 질실성있는 인식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구조주의의 원초적 뿌리는 매우 일찍이 생물학과 물리학, 수학·논리학 등의 자연과학에서 시작되었지만 방법론으로서의 그것이 체계화된 것은 언어학 분야에 서였다. 즉, 구조주의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사회학과 아랍스(Roman Jakobson)등으로 대표되는 프라하학파의 기호학, 코펜하겐학파와 미국에서 계승된 예일학파가 그 지류였다. 그 가운데 소쉬르는 구조주의의 핵심적 사고체계와 개념-체제개념과 이원적 대안의 사고 등을 개발한 구조주의의 태두였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최근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과학중심 ‘실증주의’·인간중심 ‘주체철학’의 편향적 오류 비판 구조적 분석만이 제현상 설명 및 사물의 본질규명 가능케 해

지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을 통칭하여 실증주의적 사회인식론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과학중심적 사회인식론은 역사가 흐르면서 과학철학으로서의 (논리)실증주의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특히 영미계열과 신생국의 학문 풍토에서는 주류를 형성한 것이다.

본래 실증주의는 역동적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관계로 그 정의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positive’를 ‘실제로 존재하고 관찰된 것’만으로 제한한 점에서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점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인식능력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사회인식론은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철저하게 구별한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연구의 방법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대상을 경시하고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방법론은 지나치게 과학지향적이었고 연구의 대상이 방법에 의해 선택됨으로써 관찰 가능하거나 최소한 추론가능한 사실적인 지식만을 다루고 가치적인 측면을 경시하였으며 구조적인 연구대상은 도외시한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비범중립적 방법론인 경험·분석적인 방법론이 실증주의적·과학적 방법론에 비해 우월한 것이라 확언했다.

III. 인간중심적 인식론의 실패

종래 사회인식론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인간중심적 인식론이다. 그것의 뿌리는 멀리 고대철학의 개념학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근대철학에서의 인간중심주의는 독일의 관념론과 프랑스의 스피리튀얼리즘 및 실증주의, 대륙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등으로 구성된다. 독일의 전통적 관념론은 칸트와 헤겔 및 피히테로 대변되는데, 그것은 구조와 물질보다는 인간이 우선이고 토대보다는 상부구조가 우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스피리튀얼리즘류는 드 비랑, 드 트라시 등으로 대표되는데, 그들은 존재보다 인식주체인 인간을 강조한 데카르트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

사성과 그것의 결정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인식론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회인식론은 공통적으로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는 인식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대상으로서의 구속요인인 구조 또는 환경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그러한 인간중심적 사회인식론은 특히 르네상스 이후 발전한 휴머니즘적 요청에 부합

학이 크게 실패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나아가 반철학(anti-philosophy)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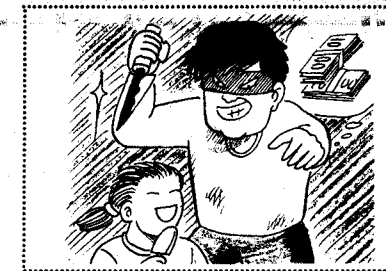
IV. 구조주의의 등장배경과 흐름

본래 구조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야는 언어·기호학이었으며 그 대표적은 프라하학파와 소쉬르였다. 이때가 19세기 후반

로 정리하려고 한다.

당시 1960년대는 프랑스에 있어 드골의 집권기, 그의 독재적 정권이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이때는 보수주의의 독재기로 전유럽에서 학생시위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신좌익은 보수주의와 대립 학생·지식인·예술가·노동자·테크노크라트 등이 68년의 5월혁명을 주도했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의혹과 사회주의에 대한 절망의

“형벌에 대한 면역바이러스”



가 날로 공포화 되어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안을 낳고 있다.
며칠 전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었던 일 가족 4명 생매장사건을 웅변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에게 걸릴 청나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이외에

조, 상업, 퇴폐적인 문화의 영향과 윤리기 준의 혼란이 낳은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명제에 다시 한번 음미한 불만 한 가지가 있는 듯 하다. 여기서 ‘환경’의 의미는 인간이 속해있는 ‘사회’를 총괄적으로 뜻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곧 개인을 통해 그 사회를 되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경제적 모순이나 가치관의 재정립없이 범죄는 영원히 존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구조적인 모순의 치유는 방치한 채, 아니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면서, 범죄에 대한 응징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

형사제도도 자주 사용하면 범인들이 면역을 가지듯이 근본적인 처방없이 범죄와의 전쟁선전포고나 ‘총기사용확대’나 하는 처방은 결국 형벌 면역증이라는 또다른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는 길 밖에 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라 범죄의 수준은 더욱 공포감을 더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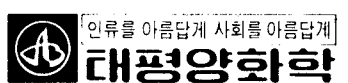
도 국민화살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범죄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를 느끼기에 앞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쯤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현사회의 모순된 경제구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중에서도 ‘범죄’

대자연의 순수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이슬꽃—
이 순수함을 생각하며 화장품을 만듭니다.

대자연의 숨결로 맑고 깨끗한 새벽공기를 머금고 꽃잎에 맺히는 무량한 이슬꽃—
그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순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도 이슬같이 항상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바로 피부의 순수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화장품을 만들면서도 순수한 이슬을 생각하고 그 순수함을 배우고 느끼는 아모레—
아모레의 모든 화장품은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아모레 순정은 17개 종합병원 피부과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